

# [YSK] Clean Swift 스터디

학습 내용 공유 1차

박혜정 (2023년 8월 18일)

# 오늘 공유의 순서

이런 걸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

- MVC의 dark side
- VIP cycle의 컴포넌트
- 클린 스위트의 목표

# MVC의 dark side

왜 그렇게 짜면 안 되는 걸까

# Massive View Controller

## 악의 근원

- view controller가 너무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다.
  - 좋은 테스트를 작성하기 어렵고 누수 지점을 찾기 어렵다.
  - 전체 코드의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.
  -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.
  - 컨텍스트 스위칭이 어려워진다.
  - 유지 보수가 많은 비용이 든다.

# 리팩토링 하면 되잖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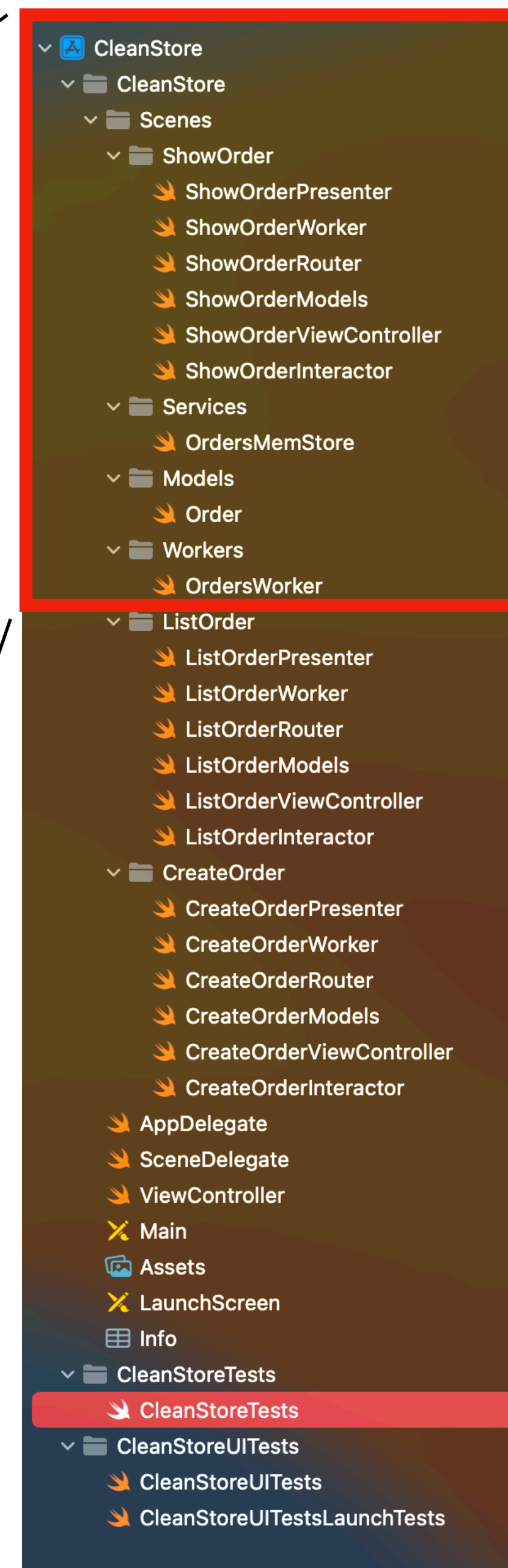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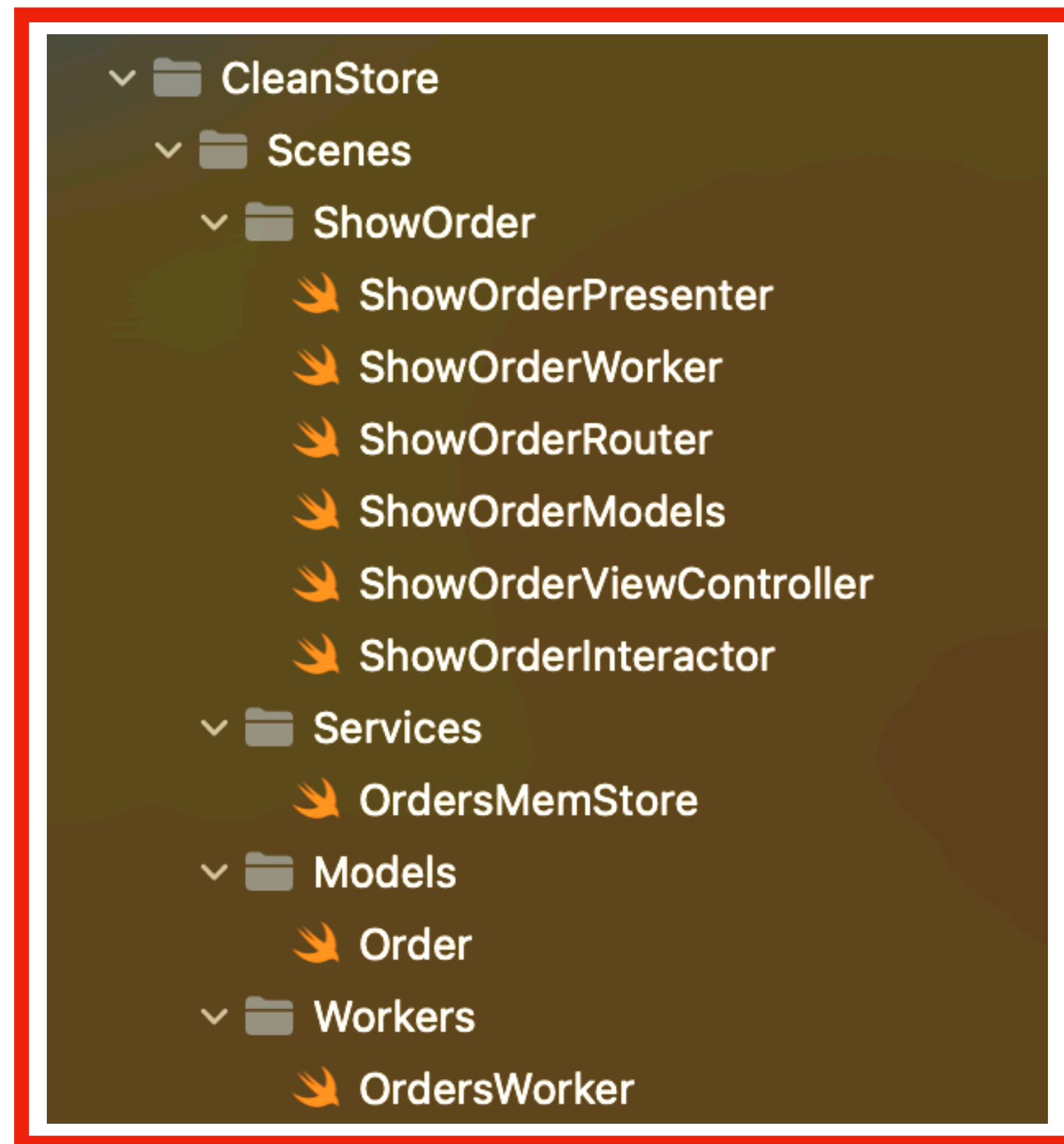
## 아 할 수 있다구요

- massive viewDidLoad() 를 쪼개도 여전히 massive ViewController
- NetworkManager 역할을 분리한다고 해도 여전히 의존성이 너무 높다.
- 효율적인 개발과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Refactoring 이 아니라 애초에 **Factored** 코드가 필요

# VIP cycle

주요 컴포넌트와 주변 요소의 역할과 관계

각 scene 에 대해 하나의 컴포넌트 그룹 생성





# 각 use case의 각의 phase 마다 하나의 인터페이스 호출

ViewController -> BusinessLogic

Interactor -> PresentationLogic

Presenter -> DisplayLogic

```
protocol CreateOrderBusinessLogic // Interactor
{
    var shippingMethods: [ShipmentMethod] { get }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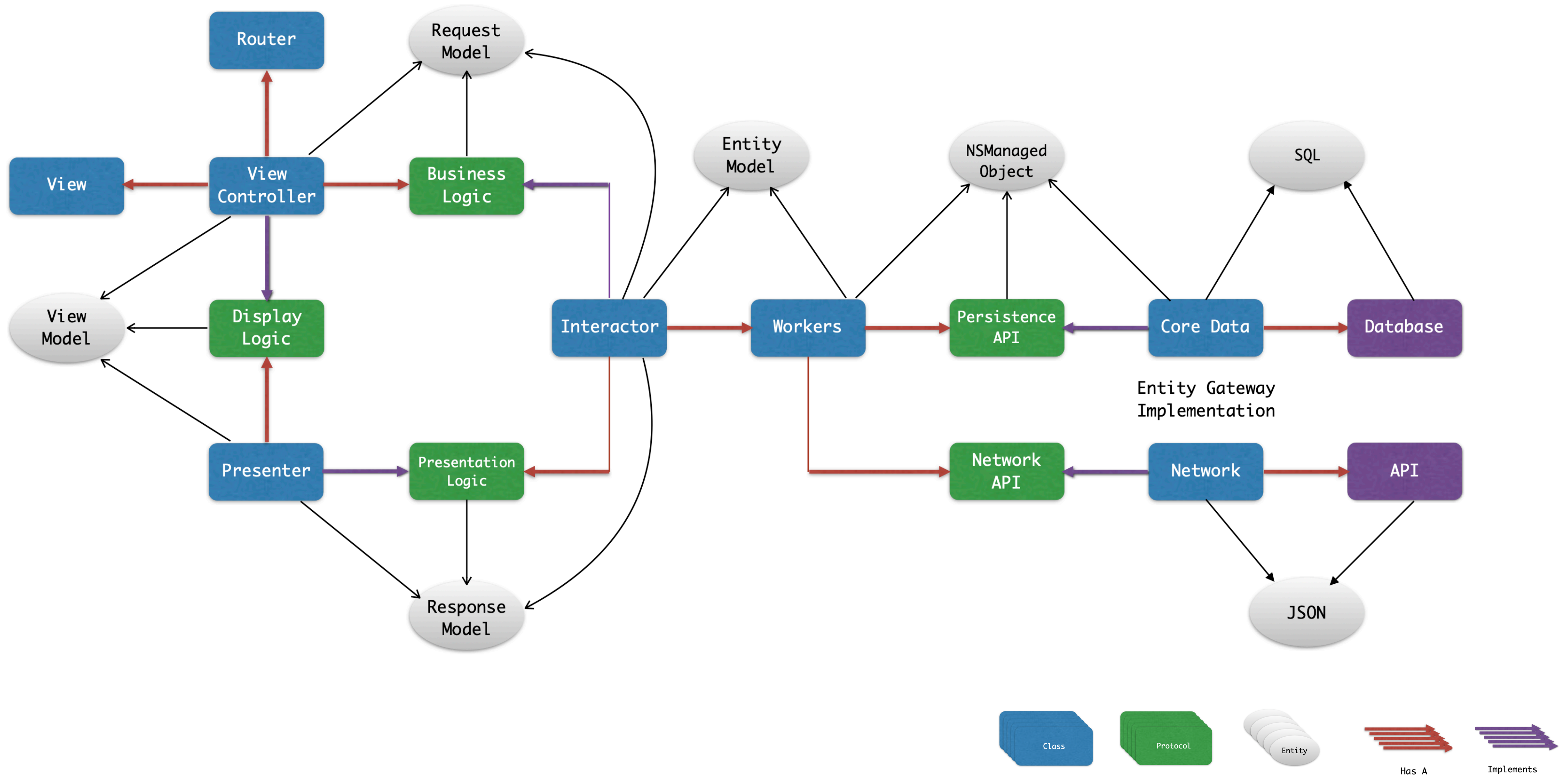
    (1) func formatDate(request: CreateOrder.FormatExpirationDate.Request)

    (2) func showOrderToEdit(request: CreateOrder.EditOrder.Reques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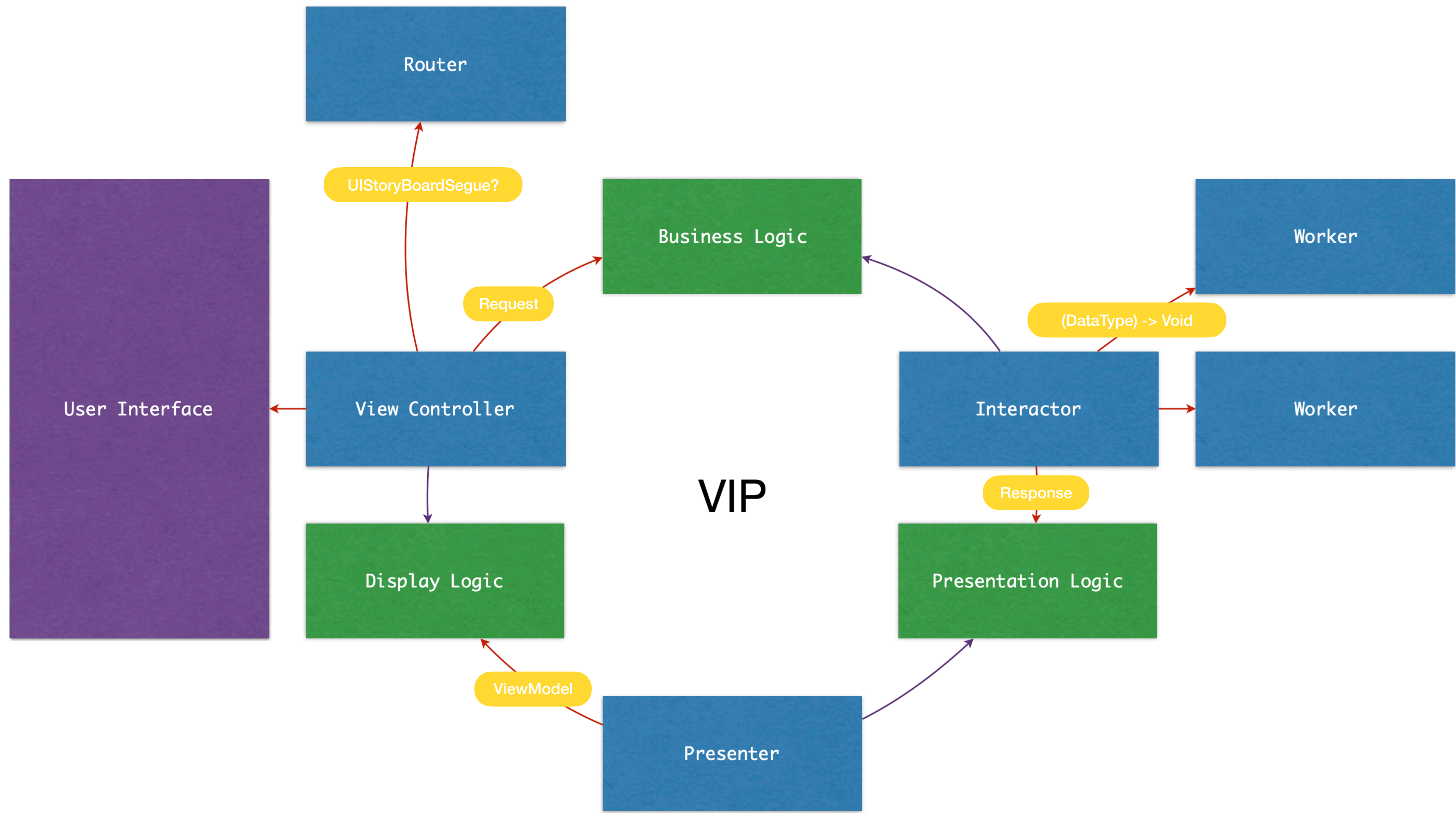
    (3) func createOrder(request: CreateOrder.CreateOrder.Request)

    (4) func updateOrder(request: CreateOrder.UpdateOrder.Request)
}
```

- (1) Date Picker의 value가 바뀔 때 마다 text field에 표시되는 Date가 바뀐다.
- (2) CreateOrder 화면이 로드되면 편집할 주문의 기존 정보를 각 필드에 표시한다.
- (3) save 버튼을 누르면 입력된 정보로 새 주문을 생성한다.
- (4) save 버튼을 누르면 입력된 정보로 기존 주문의 정보를 업데이트 한다.







# View Controller

## 이벤트 컨트롤 타워

### 1. controller

- 사용자 입력(UI event) 또는 view lifecycle 처리
- 알맞은 request를 생성해서 알맞은 비즈니스 로직을 트리거 *BussinessLogic* 소유

### 2. view

- display 로직 호출시 전달된 view model을 활용해 view 설정 *DisplayLogic* 구현

### 3. navigation 처리

- 현재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 로직 및 전환 시 필요한 데이터 전달 로직을 호출 *RoutingLogic* 소유

# Interactor

## 비즈니스 로직의 구현체

- 비즈니스 로직 처리 필요한 데이터 처리 *BussinessLogic* 구현
- 로직 처리 후 Response 객체 생성해 presenting 로직 트리거 *PresentationLogic* 소유
- 역할 분담
  - 로직을 내부적으로 직접 처리하기도 하지만
  - 특정 로직을 처리하는 전문 일꾼(**Worker**) 고용
    - interator 클래스가 worker를 소유하는 형태
    - worker가 처리한 결과 데이터를 worker 메소드 호출시 전달한 completion handler에서 활용

# Presenter

- 전달된 비즈니스 로직 수행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줄 형태로 만들어 view model 생성
- 생성된 view model과 함께 display 로직 트리거
  - 이때 DisplayLogic 타입을 약하게 참조 (참조 사이클 방지)

*PresentationLogic* 구현

*DisplayLogic* 소유 (weak)

# Payload Model

## 감싸서 넘겨주자

- 사이클의 각 컴포넌트 경계에서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사용하는 타입
  - $V > I$  : Request
  - $I > P$  : Response
  - $P > V$  : ViewModel
- 특정 데이터 타입에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래핑해서 사용
- 네스팅을 통해 네임스페이싱
  - `enum SceneName > enum UseCaseName > struct Request, Response, ViewModel`
- 원시 타입 원칙: 원시 타입만 포함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음



# Worker

## 전문 일꾼

- 비즈니스 로직(Use case) 처리의 일부를 담당하며, interactor 역할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됨
- worker를 사용하면 외부 모듈에 대한 의존성을 분리할 수 있음
- worker는 클래스로 구현되고, interactor는 구현체로 직접 소유
- Scene-specialized / Global
  - 특정한 scene에서만 쓰이는 로직도 있고,
  - 같은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으므로 공유할 수도 있음

# Router

## 화면 전환 전문

- view controller 에서 navigation 로직을 분리한 것
- view controller 가 호출할 메소드 구현 RoutingLogic 구현
- 화면(scene) 간 전환 로직(navigation logic)과 화면 간 데이터 전달 로직(data passing)이 필요
- 인터페이스 호출시 segue를 전달 받음
  - optional -> 있을 때 없을 때 모두 대응해야 함
- 이 라우터를 사용할 source scene의 view controller 를 약하게 참조
- 필요에 따라 전달할, 전달 받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dataStore를 참조

# 클린 스위프트의 목표

어떻게 달성하려는 걸까

# VIP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걸까

- 응집도 높이기 - 역할 쪼개기 (책임의 분리)
  - Scene 단위로 V, I, P, Router로 분리
  - use case 단위로 호출할 메소드 분리
  - 비즈니스 로직의 일부 역할을 Worker로 분리
- 의존성 낮추기
  - 구체 타입 대신 인터페이스(protocol)를 사용 (ex. VC이 Interactor 대신 BusinessLogic 메소드 호출)
  - 계층 간 데이터를 고정된 payload 모델을 사용해 전달